

## 내게 주신 몽골의 영혼들

- 권기드온 선교사 / 2003. 7. 11 -

안녕하세요? 권기드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몽골에는 국립대, 사범대 등 각종 공립학교와 최근 설립된 사립학교들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코스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학비도 절약할 겸, 먼저 가서 사역하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중학교의 나이드신 한 여선생님을 소개받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우수한 국어선생님이셨지만 한번도 외국인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시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매일의 수업시간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이 분은 여타 몽골인 선생님들과 달리 책임감이 유달리 강하신 분이어서 거의 한 번도 수업시간을 빼먹거나 늦으시지 않으셨고 사력을 다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괴로운 초기 학습과정을 넘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신속히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이토록 훌륭한 언어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분을 단순한 언어 선생님이 아닌 몽골에 계신 또 한 분의 어머니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제게 모든 것을 주려하셨고, 저도 모든 것으로 보답하려 했던 진실한 관계였기에 복음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6개월 되던 날로 기억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안색이 침울해져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감지하고 그 이유를 낚시시 묻자, 아들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건실한 남편과의 사이에 둔 씩씩한 세 아들은 직장과 주변 친지들 사이에 큰 자랑거리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은 큰 아들이 알코올 중독증으로 이제 간 질환까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3살 밖에 되지 않는데도 경찰근무를 하면서 범법자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술을 친구들과 함께 즐겨 마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치료를 물색해보고, 절간이나 무속신앙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해결은커녕 마음에 불안감만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시간이 불규칙해지면서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자 근무의욕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급기야는 직장도 해고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대단한 수치였기에 평소 진실해 보이는 외국인 제자에게라도 조언을 구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이 언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왔었지만 한 번도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어실력의 문제도 있었으나 주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길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민을 충분히 들은 후, “선생님, 이 사실을 완전히 터놓고 도움을 구할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더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상호감시체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수치스런 정보를 드러내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행위이기에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선생님. 그런 친구가 계십니다.” 했더니 “어디 있느냐?”고 하셨지요. “몽골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

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선생님과 만나주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즉시 평소 준비했던 전도지로 복음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순순히, 갈급한 나머지 허겁지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은 며칠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두레박에서 입을 떼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새로운 일이 가정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되고 새사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로해드리면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강조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몽골에서 신간되고 있던 매일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이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언어공부하기 전에 QT 나눔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언어에 도움을, 선생님은 신앙에 도움을 얻는 나날이 되어 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문제의 아들이 제 앞에 어머니이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무슨 신기한 도사 앞으로 끌고 오듯이 말입니다.

저는 즉시 복음을 나누었고, 그는 차근차근히 들더니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속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술도 끊다가는 마시고, 또 병원 신세를 지고, 교회도 나가다 안나가다가... 하지만 결국 제게, 이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작년 말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만나면서 믿음을 나누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두 동생도 그 후에 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남편도 날마다 성경을 애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한 한국인 가정에 의해 조상대대의 헛된 유전을 떠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몽골에서든 한국에서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 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를 힘쓰라고 말씀하신대로 생명을 나누어주려고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추수의 기쁨을 주심을 절실히 느낍니다.

많은 프로젝트와 활동들이 있지만 개인전도와 제자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은 마지막 시기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해두신 중요한 도구임을 확신합니다. 선교만이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이 살 길이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0/40창과 실크로드 상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직간접적인 민족적 아픔들이 배어 있는데, 유사한 고난의 역사를 안고 있는 한국민족은 이제 들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이 일에 주님과 함께 명예를 메고 나아가시지 않으렵니까?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